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2층 201호 063-220-6600

전주매일 1층 101호 063-220-6600

전주매일 1층 102호 063-220-660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음 4월 18일) 제22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스라엘 벤처신화, 전북서 새롭게

요즈마그룹 이갈 회장
송하진 도지사와 환담
전북 농생명·바이오
투자가성점쳐져
'와이즈만 연구소' 논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기업인 이스라엘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했다. 전북도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기업인 이스라엘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회장이 21일 전북도에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환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요즈마(Yozma)'란 히브리어로 '혁신', '창의' 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요즈마그룹은 중소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벤처캐피탈 기업이다.

요즈마그룹의 창업자인 에를리히 회장은 이스라엘 경제부 소속 수석과학관(장관)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산업 생태계와 스타트업 창업환경 조성의 기반이 된 '요즈마펀드'의 출범을 주도한 인물이다.

요즈마펀드는 초기 1억 달러에서 설립 10년 만에 자산규모만 40억 달러(약 5조원)로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으며, '중동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스라엘 벤처산업의 토양을 다지는 데

벤처창업투자 실적 세계 1위인 이스라엘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이 21일 전북도를 방문해 도청 점검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등의 투자 및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 '와이즈만 연구소' 전북유치와 관련하여 환담을 나누고 있다.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에를리히 회장의 방문은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성점을 점칠 뿐만 아니라 향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요즈마그룹은 2015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4년간 약 440억원을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 70% 이상이 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일 정도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을 공식 방문

한 에를리히 회장에게, 도내 초기 벤처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스타트업의 전북 유치 등을 요청했다.

에를리히 회장도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의 금융 관련 현안업무를 소개하고, 요즈마그룹 같은 벤처캐피탈의 집적화를 통한 도내 금융사 연쇄 유치전략 등

자생적 금융시장 생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과거 대부분이 사막이던 이스라엘을 벤처창업 세계 1위, 나스닥 상장 기업수 세계 1위의 창업선도국으로 만들어낸 요즈마펀드의 창업 열풍을 전북에도 전해주었으면 한다"면서, "이갈 에를리히 회장의 방문을 계기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북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의 기회가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총리 "검경,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버닝썬·장지연 조사로 신뢰 회복 성공 못해
치안 불안지역 대책 강화... 국민도 방문 삼가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지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 사위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려 있었으나,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없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최근 위험지역을 여행한 우리 국민이 귀국한 가운데 이 총리는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연간 해외여행자가 2870만 명에 이르고 여행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재외동포도 740만명을 넘었고 거주지도 다변화 하고 있다"며 "치안이 불안하거나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만 대책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관을 가진 국가와 국제기구 등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상 시 대응체계도 미리 갖춰야겠다"며 "국민들도 '철수권'이나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을 삼가하길 바란다.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정부부처 예산편성 막바지... 전주시 내년 예산 확보 '집중'

김승수 시장 포함 시 주요사업 실무자들, 세종청사 방문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송하진 현대화 추진 등 반영 건의

정부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들 가운데 전주시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과 주요사업 실무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예산 편성단계에서 지역 핵심사업 반영을 건의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한 해 1000만명 이상 전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장애인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실 증가 추세에 맞춰 전주승화원과 봉안당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9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을 차례로 방문,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증설 사업 등 주요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막바지에 접어든 부처단계 국가예산 반영과 향후 진행될 기획재정부 단계 예산 대응 준비를 위해 힘쓰고 있다. /송희철 기자

시에 따르면,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주발전을 이룰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정부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관계부처 국·과장과 실무자들을 집중하게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도 국가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희철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군산에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산에 전북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사원총상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간 정부로부터 국비 140억원을 지원받아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 인력 양성·교육, 창업·보육, 제품개발, 관료지원의 사회적경제의 핵심거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육구를 일원에 조성예정인 혁신타운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정과제달성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의 주주지적 성장지원을 받는 창업 및 보육, 인력

양성, 공동장비 활용, 관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을 집적한 핵심거점 사업이다.

군산시는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200여명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간 정부로부터 국비 140억원을 지원받아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 인력 양성·교육, 창업·보육, 제품개발, 관료지원의 사회적경제의 핵심거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육구를 일원에 조성예정인 혁신타운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정과제달성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의 주주지적 성장지원을 받는 창업 및 보육, 인력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